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DARA PALMER'S MAJOR DRAMA

가제 : 다라 팔머의 드라마

저자 : Emma Shevah

출판사: Chicken House Ltd

발행일: 2015년 8월 6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세계적인 여배우를 꿈꾸는 당찬 열한 살 소녀, 부당한 차별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다!

자신을 타고난 배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열한 살 소녀 다라 팔머. 춤을 누구보다 즐기는 다라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배우를 꿈꾸고, 학교에서 시작된 연극에서도 당연히 주인공을 맡을 거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그냥 연극이 아닌 ‘사운드 오브 뮤직’인데 말이다. 선생님이 사운드 오브 뮤직이 공연 작품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하셨을 때 반 친구들 모두는 충격에 빠졌다. 왜 하필 이런 케케묵은 지루한 작품을 선택하셨을까 의아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 작품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하시며 영화를 절반 정도 보여주셨고, 전체 줄거리도 설명해주셨다. 다라를 비롯한 모든 아이들은 사운드 오브 뮤직에 푹 빠져들었고, 선생님이 비디오를 끄자 아쉬움 가득한 한탄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종이 울리고 쉬는 시간이 되었지만 아이들은 달려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아쉬움에 젖어 있었다. 다라는 무릎이 후들후들 떨려 손으로 꼭 잡아 진정시켜야 할 지경이었다. 이런 훌륭한 작품을 우리가 무대에 올리게 됐다니, 반드시 주인공은 내 몫이라며 다라는 부푼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다라는 자신처럼 ‘글로벌 메가 스타’를 꿈꾸는 절친한 친구 레이시와 연극에 대해 쉼 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주인공 마리아의 얼굴 표정 연습도 당연히 이어졌다. 아이들을 호루라기로 소집하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 하던 표정부터 천둥번개가 치는 날 아이들을 엄격하면서도 친절할 얼굴로 바라보던 표정까지 둘은 열심히 연습하며 주인공으로 뽐낼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열혈 입양 소녀가 학교와 세상의 편견에 맞서기 위해 떠올린 기발한 아이디어, 과연 결과는?

하지만 다라는 오디션 연습을 하면서도 슬슬 걱정이 됐다. 이유는 몰라도 오디션을 담당할 선생님이 레이시와 다라를 꿈쩍히도 싫어했기 때문이다. ‘헤어스프레이’ 연극을 할 때도, ‘흙혈식물 대소동’ 연극을 할 때도 둘 다 주인공을 원했지만 중요한 역할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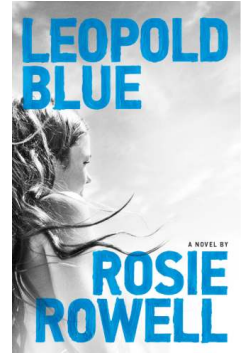
이다. 모든 아이들을 제치고 주인공을 꿰찬 엘라라는 아이는, 정말 눈뜨고 못 볼 정도로 형편없는 연기를 선보였다. 레이시는 엘라가 주인공을 꿰찬 이유는 엘라의 엄마가 학부모회 회장인데다 아버지가 학교 도서관에 거액을 기부했기 때문일 것이라 말한다.

불길한 예감대로, ‘사운드 오브 뮤직’ 오디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다라에게는 주인공은 커녕 아무 역할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깜짝 놀란 다라는 의혹을 품기 시작한다. 혹시 내가 반 아이들과 생긴 게 달라서 그런 것일까? 내 연기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겉모습 때문에 배역에서 밀린 건 아닐까? 사실 다라는 아직 아기일 때 캄보디아에서 입양된 아이다. 늘 에너지 넘치는 다라는 이런 편견 어린 시선 때문에 자신이 주목 받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만들어버리리라 결심한다. 학교는 물론이고, 이 세상 전부를 바꿔놓고 말 것이라고 말이다.

<저자 소개>

엠마 쉐바(Emma Shevah)는 아일랜드, 태국 혼혈로 자랐다. 런던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LEOPOLD BLUE
가제 : 레오폴드 블루
저자 : Rosie Rowell
출판사: Hot Key Books
발행일: 2014년 1월 2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시대 변화, 인종 갈등으로 나라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인 90년대 남아프리카 속 백인 소녀의 삶
전통주의, 인종 문제로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전체를 채웠던 1993년의 남아프리카. 백인의 한 사람으로 이곳에 살고 있는 열다섯 마거릿 버그먼은 체더버그 산자락의 먼지 가득한 작은 마을, 레오폴드에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낸다. 학교가 끝나면 늘 텅 빈 상태로 끝없이 이어지는 오후 시간을 그녀가 ‘죽은 마을’로 여기는 좁디 좁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겐 너무나 지루할 뿐이다. 영국인인 엄마는 지역주민들에게 에이즈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훈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 붓는 일에만 몰두하지만, 아무도 원치 않는 엄마의 이 원기 왕성한 ‘계몽’ 활동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반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마저 마거릿을 외면하게 만든다. 자신에겐 별로 관심도 없고 주어진 사명처럼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엄마, 그리고 엄마 때문에 자신에게 등을 돌린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마거릿은 아웃사이더가 되어 홀로 엄마와, 학교와,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고독한 싸움을 벌인다.

그런 마거릿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긴다. 마거릿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흑인 내외의 아들이자 마거릿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 사이먼이 오랜 세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를 돌며 많은 경험을 쌓고 학문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사이먼의 이야기와 뛰어나게 성장한 그의 지성은 마거릿에게 또 다른 좌절감을 안겨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가 당연한 듯 가지고 태어난 모든 것을 나 또한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했어.’라는 그의 말은 마거릿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학교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크산티라는 별난 소녀가 전학을 왔는데 왜인지는 몰라도 마거릿을 졸졸 따라다니며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려고 안달이다. 도시 생활이 몸에 배인 크산티는 시원시원하고 거침없는 성격에 마거릿으로선 너무나 생소한 십대의 삶을 보여주며 늘 다를 게 없던 마거릿의 생활에 허리케인 같은 바람을 일으키지만, 한편으로는 이기적일 정도로 마거릿의 고민과 문제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사건사고를 일으켜 마거릿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크산티가 몰래 사들인 대마초를 발견하고 차창 밖으로 던져버린 일이나, 케이프타운의 어느 해변가에서 술에 잔뜩 취해 거의 기다시피 돌아와야 했던 일까지, 크산티는 마거릿에게 십대 특유의 방황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다.

나라 전체, 사회, 가족, 친구들 모두의 변화, 그 혼란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십대 소녀의 성장기

넬슨 만델라가 나라의 상징적인 인물로 추앙 받으면서도 동시에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로 비난이 쏟아지며 히스테리와 긴장이 넘치던 남아프리카에서 사회 변화에 적극 가담한 엄마, 아직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엔 벽이 너무나 높고 단단한 지역 사회. 그 속에서, 어느 쪽도 아닌 곳에서 시간이 멈춘 듯 홀로 지내던 마거릿. 그녀의 인생에 끼어들과 찾아온 친구들과 주변의 사건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살던 마거릿이 정한 나름의 규칙과 목표를 다 허물어뜨린다. 이젠 마거릿도 변화하게 될까? 변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까?

정치적,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이 가득하던 90년대 남아프리카 사회의 모습과 그 혼란이 작은 마을, 각 가정,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십대 소녀의 시선으로 생생하게 그린 작품으로,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지만 나름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이겨내려는 한 소녀의 성장기다.

<저자 소개>

로지 로웰(Rosie Rowell)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2003년 처음 런던에 눌러왔다가 정착했다. 런던대학교에서 글쓰기 석사를 취득하고 위 작품을 데뷔작으로 완성했다.